

[코리아베스트 특집 웹소설] 임팩트코리아(제11화): 미국의 출발점, 미국의 DNA

(편집자 주: 애국소설 임팩트코리아는 애초 애국진영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애국튜브(www.aeguktube.com)의 이름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요 독자층에 대한 타깃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화에서 10화까지 웹소설이 진행되었으나, 앞으로 진행되는 구간에는 기존 타겟층은 배제하고, 코리아베스트(www.koreabest.org)의 새로운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소설 집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존 독자층 여러분의 이해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배상.)

제이슨이 입을 연다.

“동선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게.”

“물론 자네가 내 얘기를 경청하겠지만, 내가 사족을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네.”

동선이 답한다.

“물론이지. 자네 말이라면 내가 귀를 쫑긋 세우지 않나.”

제이슨이 얘기를 이어간다.

“먼저 애플 얘기를 해보지.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아이폰도 만들고, 각종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이패드, 아이맥, 맥북, 아이클라우드, 아이박스, 앱스토어, 애플TV, 애플워치 등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그런 제품과 서비스들 말이야.”

“현 세대, 현 시점에서 나오는 애플 제품들은 몇 십년전 생산되던 컴퓨터 제품들에 비해서 완성도가 높지. 시간을 거치면서 컴퓨터 기술과 공학이 발전되고 진화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각종 오류와 에러, 버그들이 수정이 되면서, 컴퓨터 제품들이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었어.”

“나도 아이폰을 쓴지 한 세월이 되지만은, 현 세대의 아이폰 제품과 그 관련 서비스들은 하늘에서 어느날 똑딱 떨어진 제품이 절대로 아니야.”

“한동안 세상을 풍미하고, 흔들고, 놀라게 한,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기술철학, 제품철학에 바탕을 두고 그의 디자인 감각에 대한 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문학적 통찰에 바탕을 두고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해서 탄생시킨 제품들이야.”

“단순히 엔지니어들의 기술적인 테크닉만 가지고는, 그런 제품들이 구상될 수도, 제작될 수도, 탄생될 수도 없는 것들이지.”

“기술적 완성도나, 세련된 디자인 감각,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그런 한 세트의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나오게 되는 과정에는, 애플 컴퓨터 회사의 오랜 동안의 공력, 내공, 노하우, 시행착오, 철학, 경험, 깊이, 차별화 등이 총집결되고 총발현된 제품과 서비들이야.”

“수십년 동안의 쌓여진 고민과 땀과 노력과 성취의 총결산이라는 말이지.”

이 시점에서 제이슨이 잠시 말을 끊고 커피를 두어 모금 마신다.

잠시 숨을 돌린 제이슨이 얘기를 곧 이어간다.

“내가 내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애플과 스티브 잡스 얘기를 서두에 잠시 꺼낸 것은, 결국 내 얘기와 맞닿아 있고, 결국 내 경험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야.”

“동선이 자네니까, 자네가 나를 오랜시간 알아왔고, 그동안의 내 삶의 궤적을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 아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얘기하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더욱 서론이 더 길어질 것이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단순히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남들 얘기를 주워들은 정도의 얘기가 결코 아니야. 자네도 잘 알다시피.”

“내가 그동안 수십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 중에서 특히 지난 30년 간의 영어공부와 국제정세 공부,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직접 살아오면서, 미국과 미국인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뼈에 사무치게 느낀 점들이야. 이런 면에서 피상적으로 미국을 관찰하고 살펴본 사람들과는 그 시각과 경험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정말 달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거나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정도 깊이까지 아예 얘기를 안하지. 하지만 동선이 자네는 똑똑한 사람일 뿐더러, 열린 마음과 열린 시각을 가진 유연한 사고방식 체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거야.”

“한마디로 내가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내공의 결정체들이지. 그 총결산이라고 보면 돼. 완전히 끝판인 죽기 직전의 총결산이라기 보다는, 중간결산이라고 봐야지. 앞으로 남은 30년을 더 공부하고 경험해야 하니까. 최종 결산은 30년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말이야.”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말이야.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려면, 역시 그 역사에서부터 출발해야돼. 그게 효율적일 뿐더러, 정통적인 접근방식이야.”

“현대 미국을 이해하려면 미국 역사에서 출발해야 돼.”

”미국과 미국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고, 미국 문명의 DNA가 과연 무엇인지 말아야.“

장동선이 손에 땀이 나고 머리칼이 쭈뼛 할 정도로 제이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장동선은 제이슨의 실력과 내공을 잘 알기에 그런 것이다.

장동선은 그야말로 초집중상태, 초긴장상태로 제이슨의 얘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한 단락, 한 단락, 그 안의 한마디의 문장과 단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말이다.

[작성] 코리아베스트 편집부

www.koreabest.org

[작성일]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미국시간)